< 제 10 장 >

요 10:1-18 양(Sheep)과 목자(Shepherd)

3절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듣는다"(ἀκούω)는 단순히 소리를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듣고 받아들이며 그에 따라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에서 "듣는다"는 것은 곧 순종을 포함한 들음이다.

따라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한 청취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형성된 신뢰와 순종의 반응이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 이는 집단적 관리가 아니라 인격적 관계를 전제로 한다.

성경에서 이름을 안다는 것은 존재 자체를 아는 것이며, 그 삶과 상태를 아는 관계적 표현이다.

"이름을 각각 부른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부르심이며, 구원이 집단적 사건이 아니라 개인적 부르심임을 드러낸다.

또한 목자는 양을 뒤에서 몰아가지 않고, 앞서가며 인도한다.

이는 동행이며,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길이 되어 주는 인도이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καλός)은 도덕적 선을 넘어, 본질적으로 참되고 온전하며 합당한 상태를 의미한다.

예수님은 단순히 능력 있는 목자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참된 목자이신 분이다.

"목숨을 버리다"(τιθημι τὴν ψυχήν)는 우발적 희생이 아니라, 스스로 내려놓는 자발적 희생을 뜻한다. 십자가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위하여 스스로 선택한 길이다.

삯꾼은 위험이 오면 도망하지만, 참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준다.

따라서 선한 목자의 본질은 권위나 통제에 있지 않고, 자기희생과 헌신에 있다.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안다"(γινώσκω, 기노스코)는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관계적 체험을 의미한다.

이는 히브리적 개념으로, 교제와 연합을 포함하는 인식이다.

예수님이 양을 아신다는 것은 그들의 상태와 연약함과 필요를 깊이 아신다는 뜻이며, 양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인지가 아니라 신뢰와 의탁의 관계 안에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종교적 소속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생명이 연결된 인격적 교제이며, 지식이 아니라 관계, 형식이 아니라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이다.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에는 제자의 길이 세 단계로 나타난다.

“듣는다”(ἀκούω)는 단순한 청취가 아니라, 알아듣고 받아들이며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다”(γινώσκω)는 지적 인식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다.

“따른다”(ἀκολουθέω)는 단순히 뒤를 걷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 자체를 목자에게로 전환하는 것이며, 일시적인 감정의 동조가 아니라, 존재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며, 신앙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실제적인 동행이다.

듣는 것은 관계의 시작이며, 아는 것은 관계의 깊어짐이고, 따르는 것은 그 관계의 실천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음성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길을 실제로 걸어가는 삶으로 드러난다.

이 단락은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 보호를 넘어, 부르심과 관계, 희생과 따름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구조를 보여준다.

<양의 특징>

양은 시력이 약하여 스스로 방향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눈앞의 것을 따라가기 쉽고, 위험을 분별하지 못한 채 잘못된 길로 나아가기도 한다.

잘 속고, 쉽게 넘어지며,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기 힘들다. 반드시 목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쉽게 넘어지며,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기 어려운 존재이다. 반드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는 인간이 죄 가운데서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양은 이기적이고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귀소본능이 강하며,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기에 보호자가 없으면 생존하기 어렵다. 이 점은 양이 본질적으로 의존적 존재임을 말해 준다.

성경이 우리를 양으로 비유한 것은 단순한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우리는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며, 쉽게 유혹에 이끌리고, 분별없이 따라가며,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기 어려운 존재이다. 그러므로 목자가 필요한 것이다.

목자가 없는 자유는 결국 방황이 되고, 인도자가 없는 선택은 위험이 된다

<양의 특성>

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목자는 양에게 각각의 이름을 붙여주고 그 이름을 부른다. 이는 단순한 식별이 아니라 반복된 관계 속에서 형성된 신뢰의 결과이다. 음성을 안다는 것은 소리를 구별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 음성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관계적 확신을 의미한다.

② 양은 무리를 이루고 있다.

양은 무리를 이루어 생활한다. 신앙은 개인적 결단으로 시작되지만, 공동체 안에서 보호되고 자라난다. 홀로 떨어진 양은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 신앙도 공동체적 돌봄 속에서 지켜진다.

③ 양은 목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이 신뢰는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존재를 맡기는 의탁이다.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곳이 안전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움직인다.

신앙 역시 이해를 한 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신뢰 안에서 따르는 것이다.

④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특성이 있다.

양은 길을 스스로 개척하지 않고, 목자의 뒤를 따른다. 이는 방향성을 의미한다.

신앙은 독자적 길을 만들어 가는 자율성의 선언이 아니라, 참된 길을 따르는 선택이다.

⑤ 양은 떨어지면 울음으로 자신의 위치를 알린다.

양은 스스로를 구하지 못하기에 도움을 요청한다. 기도는 영적 위치를 알리는 신호와 같다.

기도는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목자를 신뢰하는 표징이다.

성경이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 상태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우리는 유혹에 약하고, 스스로 지키기 어렵고, 넘어지면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다.

또한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해 다시 그것들을 추구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으며,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스스로 이길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유능한 목자가 필요하다. 그분은 오직 우리 주 되시는 예수님뿐이시다.

구원은 집단적 구조 속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목자와 양의 1:1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예수님은 늘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 따르고 안 따르고는 우리의 응답에 달려 있다.

택한 백성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하며,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듣는 것은 관계의 시작이고, 따름은 그 관계의 증명이다.

목자는 부르시고, 양은 듣고, 알고, 따르는 관계 안에서 생명이 유지된다.

<먼저 행할 말씀>

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6:33)

②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마16:24)

③ 너희는 땅 끝까지 내 증인 되어라. (행1:8)

요 10:18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빼앗다"(αἴρω, 아이로)는 '강제로 취하다', '제거하다', '들어 올려 없애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예수님의 생명은 외부의 폭력에 의해 강제로 제거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ἐμαυτοῦ) 버리노라 하신 것처럼, 자발적으로 내어주신 것이다.
예수님은 희생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생명을 내어주신 주체이시다.

"권세"(ἐξουσία, 엑수시아)는 단순한 능력(power)이 아니라 합법적 권한(authority)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취할 권세'도 가지신 분이시다.
이는 십자가와 부활이 분리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구속 사역 안에 있음을 드러낸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빼앗아 갈 수가 없다.
구원의 주권은 인간이나 사탄에게 있지 않고, 인간의 생명을 버리시고 다시 취하시는 주님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분별이 필요하다.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과 "지배"하는 것은 다르다.
역사는 외부에서 영향을 가하여 흔들고 넘어지게 하려는 시도이며, 지배는 스스로 순종의 방향을 바꾸어 그 권세 아래 들어가 종이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영에게 빼앗기셨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이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그 소속이 드러나는 것이다.

<롬6:16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그의 종이 된다> 순종은 소속을 드러낸다.
예수님은 생명을 다시 취하신 분이시며, 돌이켜 오는 자를 다시 붙드실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따라서 구원은 강제로 붙들려 있는 상태가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관계 속에서 지속되는 언약적 생명이다.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 음성에 응답하며 따르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순한 교리적 선언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묻는 말이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으며,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주님은 생명을 스스로 내어주셨고 다시 취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를 붙드시는 분도 주님이시다.
우리가 돌이켜 그 음성에 응답할 때, 예수님은 다시 취하시는 권세로 우리를 받아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

10:28-29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영생"(ζωὴ αἰώνιος)은 단순히 끝없이 지속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안에 들어간 생명을 의미한다. 이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관계의 질에 관한 것이다.
"멸망하지 아니한다"(οὐ μὴ ἀπόλωνται εἰς τὸν αἰῶνα)는 헬라어에서 가장 강한 부정 표현으로, 결코 멸망에 이르지 않음을 강조한다.
이는 구원이 우연이나 상황에 의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안에 있음을 나타낸다.

"빼앗다"(ἁρπάζω)는 '강제로 채간다', '낚아챈다'는 뜻으로, 외부의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손에서 신자를 강제로 끊어낼 수 없음을 선언한다.
그러므로 영생은 누구도 외부에서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물이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목적은 참된 신자들로 하여금 구원의 불변성을 알게 하려 함이다. 참된 신자들은 악한 것으로 둘러싸였고 그들은 연약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의뢰한 자가 그날까지 능이 지키실 것에 대하여 확신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구원은 나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한 교리적 선언으로만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 구원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관계 안에서 유지되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구원은 한 순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까지 이어지는 관계적 여정이며, 순종 속에서 드러나는 삶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는 확신과 함께, "누구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는 말씀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붙드시는 분이시며, 우리는 그 붙드심 안에서 끝까지 따르는 자로 서 있어야 한다.

이 구절과 롬8:35-39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는 말씀으로 인하여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한번 구원받으면 계속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를 버리신다. (10:18절 참조)
그러므로 구원은 마지막 날까지 이루어가는 것이지, 살아가는 동안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1.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종 심판의 날에 이루어진다.

계20:12-15는 최종 심판을 말하며, 그때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

<요 6:40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영생은 지금 믿는 자에게 이미 주어지지만, 그 완성은 "마지막 날"의 부활에서 드러난다.

따라서 구원은 현재적으로 시작되지만, 종말에 이르러 완전하게 성취된다.

죽은 후 낙원에 있다는 것은 구원의 자격이 확정되었음을 의미하지만, 그 최종적 완성은 재림의 날, 곧 부활과 심판의 순간에 이루어진다.

2. 구원은 영원한 것인가?

계21장은 구원은 영원하며 절대로 변하지 않는 완전한 구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구원은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다.

<히 6:4-6 한번 비췸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예한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여기서 "맛보다"(γευσαμένους)는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실제 참여를 의미하며,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는 것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한 상태를 가리킨다.

그러나 그 상태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은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는 심각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구원의 예정된 자도 타락하면 (하나님 뜻에 따르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마 10:22 내 이름을 인하여 ~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디다'(ὑπομείνας)는 지속적 인내를 의미한다.

'얻으리라'(σωθήσεται 소데세타이)는 'σῴζω'(소조)의 미래형으로 '구원받게 될 것이다' 뜻으로, "끝까지 견딘 사람이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는다"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 안에서 남아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구원은 먼저 택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는 자만이 후일 심판 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사는 동안에는 택함을 받았다고 해야 하는 것이지, 구원받았다는 말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빌 2:12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이루라"(κατεργάζεσθε)는 현재 명령형으로, 계속 이루어가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시작되지만, 믿음과 순종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으로, 이미 구원의 확증은 주어졌으나, 그 확증은 매일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증거로 나타나야 한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에 늘 순종하는 것이다.
구원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시작된 구원은 순종 안에서 성숙해 가는 것이다.

요10:28-29는 구원의 안전성을 말하며, 롬8:35-39는 그리스도와의 끊어질 수 없는 구원의 관계를 말한다. 그러나 히6장과 마10:22는 구원의 지속성을 강조한다.
하나님은 결코 배앗기지 않으신다. 그러나 인간은 떠날 수 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인간은 끝까지 믿음 안에 머물러야 한다.
구원은 선언으로 시작되지만, 그 완성은 마지막 날에 이른다.
그러므로 신자는 구원을 소유한 자로 살되,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는 자로 살아야 한다.

요 10:22-42 메시아에 대한 논쟁

22-23절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수전절'(Ἐγκαίνια)은 (마카비 혁명) 더럽혀졌던 성전을 다시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다.
(마카비 혁명은 기원전 2세기경 유대인들이 헬라 문화 강요와 종교 탄압에 맞서 일으킨 유대 민족·신앙 회복 운동. '하누카')
과거의 성전 회복을 기억하는 이 절기 속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성전을 방문하신 것이 아니라, 참된 성전으로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셨다.
그러므로 이 장면은 단순한 장소의 배경이 아니라, 계시가 드러나는 자리이다.

24절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유대인들의 이 질문은 확인이라기보다 이미 내린 판단을 정당화하려는 요구에 가깝다.
그들은 이미 마음속에 결론을 정해 놓은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내려고 요구한 것이다.
그들은 표적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들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마음의 문제였다.

26-27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은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다.

이는 믿음이 소속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속이 믿음을 드러낸다는 뜻이다.
이 대목에서 택함의 개념이 암시된다. 하나님 양과 하나님 양이 아닌 자가 구분되는 기준은 외적 열심이나 지식이 아니라, 목자와의 관계이다.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양”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양은 목자에게 속한 자, 곧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말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는 말씀은, 구원이 단순한 지식이나 종교적 소속이 아니라, 듣고, 알고, 따르는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생명임을 보여준다.

30-36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기서 “하나”(ἕν)는 남성형이 아니라 중성형으로, 인격의 동일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과 본성의 일치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사명적 일치가 아니라, 존재론적 일치를 선언하는 말씀이다.
이 선언은 단순한 메시아 주장 수준을 넘어,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임을 드러내는 것이었기에, 유대인들은 이를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였다.
“너희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시82:6)는 인용은, 자신을 낮추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논리적 모순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율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들”이라 불렀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이 어찌 신성모독이 되느냐는 논증이다.
결국 이 단락은 예수님이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이신 분, 곧 참된 메시아,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장면이다.

<선한 목자>

(요10:11 나는 선한 목자. **I am the good shepherd**)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목자'이신가?

1. 구원의 목자

<시 23: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동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다닌다. 지팡이는 양들이 무리들을 벗어나 다른 길로 갈 때, 지팡이의 고리로 목을 끌고 무리 쪽으로 끌고 올 때 사용한다.

그리고 막대기는 양들을 해치려는 사나운 짐승들이 달려들 때, 그 짐승들을 물리치는 무기이다.

그러나 그 막대기로 그 짐승들을 물리치지 못할 때는 몸으로 싸우며, 때론 목동들은 다치거나 죽기도 한다. 그래서 다윗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면 내가 그 입에서 새끼를 구하였다" 하였듯이, 목자는 양들을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걸고 어떠한 경우라도 양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다.

<요10:11 예수님은 백성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목자>

예수님은 우리를 악한 사탄에게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상 끝날 까지 함께 하시며 악한 사탄의 손에서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신다.

어리석은 양인 우리가 예수님 곁을 떠난다 해도 목동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듯이,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아 부르시며, 결코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우리들의 영원한 목자이시다.

그리고 끝내 사탄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던 것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의 목자」이시기 때문이다.

진실로 예수님은 죄악과 사탄의 유혹에서 찢기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보호하셨고, 지금은 성령으로 도우시고 지키고 계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요3:17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하셨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 천국의 영원한 복락은 사라지고 멸망의 길만 남아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우리들을 그 죄악에서 건져내어, 아담이 누렸던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락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번성케 하는 목자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구원의 목자」로 오신 것이다.

2. 사랑의 목자.

<사 53:6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① 양은 시력이 나쁘다.

양은 시력이 나빠 앞을 잘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앞에서 인도하는 목자를 바라보고 따라야만 평탄한 길로 갈 수 있으며, 푸른 초장의 쉼터에서 평안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

목자를 잃거나 곁에서 떨어져 버린 양은 사나운 짐승에 잡아먹힐 수도 있고, 푸른 초장을 찾지 못해 굶주려 죽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 온전히 살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도 양과 같이 바로 앞을 알 수가 없는 나약한 존재들이다.

우리 역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온전한 삶을 누릴 수가 없다. 또한 어떠한 목자의 뒤를 따르는가에 따라 그 운명이 달라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가? 아니면 악한 사탄을 따르는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따르는 자에게는 푸른 초장의 풍요로움과 쉴만한 물가의 평안한 곳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며, 또한 어떠한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쳐도 보호받을 수 있지만, 악한 목자인 사탄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푸른 목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친 광야와 메마른 사막으로 인도하여 가난과 궁핍과 환난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멸망의 길로 인도함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바로 앞도 못 보아 갈 길을 알지 못해 광야의 길, 멸망의 길로 가는 우리들을 친히 부르시어 푸른 초장의 쉼터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목자」이시다.

②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한다.

<요 10:2-4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 가노라>

양에게는 각기 이름이 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다른 사람이 부르면 못 알아듣고, 주인이 부르면 알아듣고 쳐다본다.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이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만 목자의 뒤를 따를 수 있고, 푸른 초장에서 쉼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목자는 양들을 한꺼번에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 각각의 이름을 부르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 한사람, 한 사람씩 부르시어 먹이가 풍성하고 물이 있는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내가 믿는다고 내 남편/ 아내/ 자녀/ 형제들을 모두 부르시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는 자만이 그의 부름을 받을 수 있다.

목동은 자기의 양들에 대하여 어디가 아프고, 무엇을 좋아하고 성격이 어떠한가를 알고 있어야 그 양들을 튼튼하게 길러 많은 결실을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므로 그 형편에 따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으로 우리는 이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생사화복의 주이시며, 또한 우리들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시므로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여 있더라도 우리들을 부르시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목자」이시다.

3. 평강의 목자.

<시 23:1-2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목자는 그냥 양과 함께 있거나 다닐 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목자의 의무는 ① 양들을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② 건강하게 사육시켜 많은 새끼를 얻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목자에게는 양들이 풍성히 먹을 수 있는 양식(꼴)을 준비해야 하고 평안히 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을 악한 사탄으로부터 보호하며 굶주리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평안한 삶을 주실 수 있는 목자는 누구신가? 세상의 권력자/ 부자/ 박사도/ 누구도 아니다.
그들 역시 바로 앞을 못 보는 양에 불과하다. 우리보다 더 앞을 못 보는 양일뿐이다.
그 목자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손수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안히 쉬게 하리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어 우리들의 무거운 짐을 벗겨 주시며 안식의 풍성한 삶을 주시는 「평강의 목자」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
1.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기 위해 오신 「구원의 목자」.
2. 우리들을 고난과 멸망의 수렁에서 구원하시어 영생의 복락을 주시기 위하여 푸른 초장 쉼터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목자」.
3. 우리들을 이 땅에서 강건하고 풍성히 살아갈 수 있도록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평강의 목자」.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르는 아름다운 양들이 되어야 한다.